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외모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의복선호도에 대한 연구

김전구, 서미아, 이유경*, 이선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인구의 노령화현상으로 인해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의복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는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변화, 심리적·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노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의복 문제를 지닌다.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노인은 그들의 외모와 의복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중요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의복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의복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원하지않는 신체적 변화를 감추기 위해 의복을 활용하며, 신체특성의 변화로 의복 구입시에는 신체에 맞는 디자인, 치수를 중시한다.

이와 같이 의복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노인에게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노인 의복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복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198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대부분의 의복은 젊은층의 체형과 기호에 의거하여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한 총체적 노인의복 연구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노인들의 의복에 대한 불만족과 선호하는 의복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시내 거주 55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1.생활만족도와 의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2. 생활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 간의 상관관계, 3. 외모만족도와 의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4. 외모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노년기 여성의 의복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이 생활만족도와 외모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의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1994년 11월부터 1995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서울 시내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8곳의 노인대학과 3곳의 노인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학생의 친·인척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도 자료를 수

집하여 연령 및 계층 등이 다양한 대상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총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514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418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PC를 사용하여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 문항을 요인분석하였고, 의복선호도와 의복만족도는 빈도와 퍼센트를 사용하였으며,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관계, 일원분산분석, t-test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만족도와 의복만족도; 생활만족도 문항의 요인분석결과 1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의복의 일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사회적 및 외모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 결과,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의복만족도의 3개요인에 대하여 더욱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생활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 선호의복은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투피스정장, 블라우스와 스커트의 순이며, 높은 집단의 경우 투피스정장, 블라우스와 바지, 블라우스와 스커트의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블라우스와 바지를 더욱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정장스타일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의복색에서는 봄에는 분홍, 미색, 베이지, 노랑, 여름에는 흰색, 하늘색, 파랑, 미색으로 색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을에는 밤색, 자주, 베이지, 겨울에는 검정, 밤색, 회색의 순으로 두 집단의 선호순위가 동일했다. 선호하는 문양은 문양없는 단색의 옷, 기하학적 문양을 공통적으로 선호했으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점문양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옷감은 세탁이 간편한 옷감,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의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따른 집단간에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3. 외모만족도와 의복만족도; 외모만족도 문항의 요인분석결과 신체만족도와 얼굴 및 인상만족도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의복의 일반적인 만족도의 3개 요인에 대하여 더욱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체만족도와 시판기성복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잘 맞지 않는 부위로는 블라우스/스웨터와 자켓에서는 소매길이, 어깨부위, 블라우스(자켓)길이였으며, 바지에서는 바지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에서는 스커트길이, 허리둘레, 아랫배부위로 두 집단이 동일했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더욱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얼굴 및 인상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 관계에서는 의복만족도의 3개 요인에 대하여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외모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 선호하는 의복의 종류로는 신체만족도가 낮

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를 더욱 선호했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투피스정장 차림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투피스정장 차림이 높은 것과 일치한다. 선호하는 의복색으로는 봄에는 두 집단이 모두 분홍을 가장 선호했으나 2,3위는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흰색과 베이지로,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미색과 노랑으로 나타났다. 여름에는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흰색을 가장 선호했으나 2,3위는 차이를 보였다. 가을에는 밤색, 자주, 베이지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나타냈으며, 겨울에는 검정, 밤색, 회색의 순으로 두 집단에서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선호하는 문양은 문양없는 단색의 옷, 기하학적 문양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점문양이 3위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옷감은 세탁이 간편한 옷감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선호되었으며,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을 더 선호했다. 반면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을 더 선호했다.

얼굴 및 인상만족도에 따른 외출복 선호도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호하는 의복색에서는 봄에는 분홍, 미색, 베이지, 노랑, 여름에는 흰색, 하늘색, 파랑, 미색, 가을에는 밤색, 자주, 베이지로 색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겨울에는 검정, 밤색, 회색의 순으로 두 집단이 동일했으나,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선호비율이 더욱 높았다. 선호하는 문양은 문양없는 단색의 옷, 기하학적 문양, 전통문양이며, 선호하는 옷감은 세탁이 간편한 옷감을 두 집단 모두가 1위로 들었다. 특히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을 선호하는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와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도 및 치수적합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의복디자인 선호도는 두 집단간 뚜렷한 차이가 없는 가운데, 생활 및 외모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투피스정장 및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년기 의복의 관심도와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외모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의복선호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따라서 노년기 여성의복 연구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앞으로의 보다 광범위한 노년기 의복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특성과 의복을 여러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연구대상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시키고, 타문화권과의 비교연구도 요구된다고 하겠다.